

아버지의 우물

쫓겨난 이삭은 도시를 벗어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다. 그랄 지역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다. 흉년의 여파가 있어서 아직은 남부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고 그랄 골짜기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애굽은 언제나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랄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이미 메워져 있었다. 그러나 우물은 막고 메울 수 있어도 솟아 오르는 샘의 근원을 막아버릴 수는 없었다. 이삭은 우물을 복구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랄에도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우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곳은 그랄 땅이고 그랄의 물이니 당연히 그랄 사람들의 것이라 주장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 창세기 26:20**

이때부터 이삭의 양보가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우던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새로 판 우물의 소유권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냥 넘겨주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그냥 넘겨주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우물을 팠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까지 주고, 또 주면서 계속 자리를 피한다.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 창세기 26:22**

더 이상의 시비가 없을 때 이삭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힘 없고, 겁 많고, 싸움이 두려워 도망친 사람이 자기 위안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삭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물려 받은 것은 물론이고 더 큰 거부가 되어 강성해진 이삭이었다. 오죽하면 그랄 왕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떠나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어 조카 롯을 구출한 일을 생각하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단순히 짐승 숫자만 많은 목동들이 아니었다. 그랄 골짜기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들쯤은 간단히 제압할 힘이 이삭에게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주고, 양보한다. 농사를 지었던 땅은 물론이고 우물의 숫자도 상당하다.

우물에 관한 분쟁 끝에 이삭은 브엘세바에 도착한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값을 주고 산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 창세기 26:24**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겠다,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 주셨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거기 머문다. 말씀에 기록된 이삭의 첫 제단이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은 비겁해 보일만큼 주고 또 주면서 충돌을 피한다. 흉년이 닦친 광야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우물이었지만 이삭은 그냥 넘겨준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또 달라고 시비를 건다. 그러면 또 준다.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팠던 또 다른 우물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유산. 무한하고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줄 수 있었다.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을 탐하는 까닭은 그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 할 때, 이삭처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 없으면 안되는 사람들에게 그것 없어도 더 큰 영적 유산이 있는 우리가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